

##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함

성경: 딤편 1:3-6, 롬 8:4, 창 4:26, 엡 6:17-18, 살전 5:16-20

- I.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곧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계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는 원칙이어야 한다—딤편 1:3-6, 비교 고전 9:17.
- A. 하나님의 큰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하여, 선택되고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들 모두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여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 B. 이러한 신성한 분배의 결과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사람인 교회이다. 이 유기체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되고 증가된 육체 되심이 완전하게 완결된 것이다. 즉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께서 인성과 연합된 그분의 신성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단체적으로 표현하시도록 하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다—엡 3:9, 19, 계 21:2, 9-10, 비교 욥 10:13.
  - C.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은 신부, 곧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세 부분으로 된 교회와 결혼하시어 단체적인 한 실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집대성으로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계 22:17상.
- II.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고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고 살고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 안에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롬 8:4, 1:9, 갈 5:16, 25, 빌 3:3.
- A.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그 영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시다.
  - B. 우리의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과정의 각 단계는 넘치도록 풍성하시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의 성분이 되었다. 그 영 안에는 삼일 하나님의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치신 과정의 모든 단계가 그 성분으로 들어 있다—요 1:14, 고전 15:45하.
  - C.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시어 한 영이 되셨다. 단지 우리가 그 영'과'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와' 그 영이 하나이다—고전 6:17, 계 22:17상.
  - D.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일을 하는 대신에, 계속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함으로써 다만 그분께서 사시고 일하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갈 2:20, 고전 15:10, 빌 4:4-6.
  - E.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하지 말며, 어떤 필요도 채우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그 영께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다.
  - F.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께 반응할 수 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 것이다. 영 안에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되며 이기는 이가 될 길이 없다—롬 1:9, 계 1:10, 4:2, 17:3, 21:10.

III.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고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고 살고 존재하는 길(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길)은 다음의 실행들을 따르는 것이다.

- A.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창 4:26.
1.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시 50:15, 렘 29:12)이자 하나님의 갈망(시 91:15, 습 3:9, 숙 13:9)이다.
  2.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에서 물을 마시는, 기쁨이 넘치는 길이며(사 12:3-4),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즐거운 길(욥 27:10), 즉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운 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매일 그분을 불러야 한다(시 88:9).
  3. 주님을 우리의 숨으로 들이쉬고 우리의 생수로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한다—애 3:55-56, 사 12:3-4.
  4.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그분을 불러야 한다—롬 10:12-13.
  5. 바울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명했다—딤후 2:22.
- B.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인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1.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영과 일치한다.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하고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관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관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2. 원수가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에 주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죽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요소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3. 의심, 미움, 시기, 교만,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죽일 수 있다.
  4. 우리가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자아와 자아의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더 죽음에 넣어진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실질적인 길이다.
- C.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살전 5:16-18.
1.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게 하는 비결이다—빌 4:2-9.
  2.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계속 주님을 부르며, 언제나 주님께 말씀드리고, 온종일 “주님, 저를 통해 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은 분명히 기도하는 습관이다.
  3.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중단 없이 교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강한 영과 더불어 꾸준히 힘쓰는 것이 요구된다—롬 12:12, 골 4:2, 엡 6:18.
  4. 우리는 좋은 때뿐 아니라 항상, 또한 좋은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엡 5:20).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롬 8:28-29).
- D.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끄지 말아야 한다—살전 5:19.
1. 그 영은 우리의 영을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들을 불타오르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을 끄지 말아야 한다—롬 12:11, 딤후 1:6-7.
  2. 우리는 신성한 사실들과 함께 섬으로써 그 영을 끄지 않는다. 우리는 연합된 영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주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반드시 함께 서야 한다.
    - a. 그 영을 끄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몇 구

절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기복이 없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랄 것이다.

- b.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끄지* 않고 영적인 사실들과 함께 서며 이 사실들에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따라야 하고, 그 영과 하나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롬 8:14.
- E. 우리는 반드시 신언을 멸시하거나 경시하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신언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살전 5:20.
1.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고전 14:4하, 비교 마 16:18.
  2. 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다—고후 3:3, 6, 행 5:20, 고전 14:3, 31.
  3. 신언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탁월한 은사이다. 우리가 신언을 하려고 한다면 신언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전 14:12.
    - a.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잠 4:18, 애 3:22-24, 시 119:147-148.
    - b. 우리는 반드시 매일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계 21:6, 요일 1:6, 롬 8:4, 딤후 4:2상.
- F.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을 *끄지* 않으며, 신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을 통해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을 실행하도록 신실하게 시도해 보라고 격려하고 싶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명의 실행들에 의해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기를 바란다.”—*하나님의 계시의 최* *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66쪽.